

서 평

Carlos Fuentes, *The Buried Mirror: Reflections on Spain and the New World*,
Boston: Houghton Mifflin, 1992. pp. 399.

이 성 형

라틴아메리카 작가 중에서 까를로스 푸엔테스만큼 다혈질적이고 활동적인 작가도 드물다. 멕시코의 정치현실에 대해 누구보다도 비판적인 그는 북미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진행될 당시 제도혁명당 정부의 비민주적이고 외세의존적인 태도에 대해 신랄하게 공격을 퍼부었다. 1994년도 대통령 선거 직전에는 저명한 정치학자인 호르헤 까스따네다와 함께 '산 앙헬 그룹'을 결성하여 불편부당한 지식인 그룹이 멕시코 정치의 민주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 바쁜 활동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좋은 작품을 꾸준히 내놓기도 한다. 『태내의 크리스토폴』, 『아메리카 캠페인』, 『멕시코 신시대』 등이 그 예에 속한다. 이런 그가 컬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정복 500주년을 그냥 놓쳤을 리가 없다.

작가가 쓴 역사가가 우리에게 다소 생소하게 여겨질 지 모르지만 라틴아메리카 현실에서는 이미 익숙한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루과이의 작가 에두아르도 갈레아노의 역작 *Las venas abiertas de America Latina* (Mexico: Siglo XXI. 우리나라에서는 『라틴아메리카 5백년사: 수탈된 대지』로 범우사가 출판한 바 있다)가 수십판을 거듭하면서 군정시대부터 널리 읽힌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푸엔테스의 책은 갈레아노의 그것과는 좀 유별나다. 갈레아노가 초점을 맞춘 것이 1960년대 라틴아메리카 지식인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던 지배, 종속, 수탈, 착취의 패러다임이라면, 푸엔테스는 아메리카 대륙 정복 500년을 기념하여 이베로아메리카 문화의 정체성을 되새기며 구원의 가능성을 문화에서 찾는다.

라틴아메리카가 깊숙히 빠져있는 질곡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을 문화의 힘에서 찾는 그의 시각은, 이베리아 전통의 문화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질곡으로 작용한다는 모스(Richard Morse)나 위아르다(Howard Wiarda) 그리고 벨리스(Claudio Veliz)의 논리를 정반대로 뒤집어 엮는다. 기존의 논리를 뒤집어 엮는 만큼 새 논리를 뒷받침하는 도발적인 해석들이 군데군데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전문 역사가나 사회과학자가 마음 편하게 읽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책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책은 라틴아메리카와 스페인의 역사를 공부하는 초심자들에게나, 문화적 측면을 경시하는 사회과학자들이 자신들이 지닌 편견을 비추어보는 하나의 '거울'로 삼는다면 매우 훌륭한 입문서의 구실을 할 수 있다. 사실 이 책은 수십권에 달하는 라틴아메리카 역사 입문서와는 달리 몇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그는 문학교란 직업적 한계를 넘어서 가히 르네상스풍의 문화인으로서 회화, 건축, 사상 등의 역사에 놀랄만큼 박학한 지식을 구사하여 원형을 찾기 힘든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의 문화를 흥미롭게 해석해 낸다. 원래 스페인이나 라틴아메리카의 문화는 해독하기가 쉽지 않다. 스페인은 유럽대륙을 배회한 모든 민족이 무언가를 남기고 떠난 곳이다. 스페인은 탈무드, 코란, 성경이 공존했던 문화이기도 하고, 로마인, 고트인, 유대인, 아랍인이 서로 피를 함께 나누었던 곳이기도 하다. 1810-20년대에 독립했던 라틴아메리카 대륙도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잉카, 아스떼카, 마야와 같은 컬럼버스 이전의 큰 문명의 유산에다, 17-18세기의 정복자들이 가지고 온 유럽의 카톨릭교와 다양한 제도들, 그리고 독립혁명 당시 풍미했던 계몽주의, 합리주의 전통 등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의 라틴아메리카이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현실을 실타래 뿔듯이 가다가다 정리하는 글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둘째, 이 책은 놀랄만큼 유려한 문장과 내용으로 서술되어 마치 소설책을 읽듯 흥미롭게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 500년사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대기적 기술로 쓰여진 역사가가 주는 딱딱함이라든가, 나라별 백과사전 정리하듯 쓰여진 책들이 주는 너저분함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두 번째 장점이다. 물론 뛰어난 에세이스트이자 소설가로서 문장 표현의 아름다움은 말할 필요도 없다.

셋째, 정복자와 피정복자 사이에 일어난 문화간의 만남을 해부하는 데 있어서 저자는 한 쪽의 일방적인 지배나 강권을 강조하는 제국의 공식적 역사해석(imperial historiography)이나 피해상황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검은 전설'(black legend; trauma perspective)을 거부하고 정복자의 전략과 피정복자들의 저항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과정을 그려낸다. 이러한 부분은 지난 10여년간 역사학계에서 이루어진 논의의 성과들을 내부로 흡수하여 정리한 것으로, 이 책에는 뛰어난 문체 이상의 것이 담겨있다는 징표로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물론 문제점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문화의 해석에 치중한 나머지 종래 역사학계에서 누락되었던 사회경제적 해석이나 계급분석, 인종적 균열에 대한 논의는 완전히 빠지고 '문화적 통합'의 '미덕'에만 후하게 점수를 준다. 이러한 해석은 인종간의 거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또 계급적 불평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현실에 비취볼 때 다소 안이하고 평면적이란 느낌을 준다.

둘째, 물론 부제가 '스페인과 신세계에 대한 고찰'이기는 하지만 먼로 독트린 이후

라틴아메리카 대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여 내용상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좋던 싫던 미국도 하나의 현실이기 때문에 라틴아메리카에 미친 영향력과 그 결과도 그만큼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유럽문명의 비중은 축소되거나 약화되고 있고 강력한 미국화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보여지는 1970년대 이후의 정세를 생각한다면 푸엔테스의 '유럽주의'도 지독한 것이라고 할만 하다.

셋째, 오늘날의 역사기술은 지난 오랜 세월동안 잊혀진 사람들이나, 세대, 집단을 발굴하는 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여성들의 역사와 그들의 관점이다. 유독 마초이즘(machoismo)와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강력한 이 문화권에서, 여자에 대해 '간음'과 '성스러움'이란 양극화된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이 문화권의 문화를 서술함에 있어서 여성들의 역사나 관점이 적절히 반영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1992년 이 책은 6개국의 언어로 7개국에서 동시에 번역 출판되었다. 이와 더불어 Discovery/BBC 텔레비전에서는 푸엔테스를 해설자로 내세운 TV 프로그램 5부작을 제작하여 전세계에 방영한 바 있다. 이 책과 비디오는 세계인들에게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를 소개하는 훌륭한 입문서로 오랫동안 읽히고 시청될 것이다. 한국에서도 조만간 이 프로그램이 텔레비전에 방영되고 또 번역본도 출간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이성형,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전임연구원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408호

TEL : 880-8507(O), 872-8438(H)